

‘목돈 마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

광주경총, 中企 재직 청년 5년간 적립시 3000만원 수령 정부 지원

광주경제자유총합회는 2018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접수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공제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구조로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적립한다. 공제만기 5년이 경과하면 적립금 3000만원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가입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재직자이어야 하며,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을 인정해 최대 만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 재직자도 가입자격을 충족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이 청년재직자를 위해 적립하는 공제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도 받을 수 있다.

청년재직자도 공제 5년 만기 때 공제금 수령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광주경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팀(062-654-34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출 중소기업 86% “하반기 수출실적 전망 양호”

수출 영향 요인, 환율 변동성 심화 33.2% 최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하반기 수출실적에 대해 양호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IBK경제연구소가 수출 중소기업 5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한 설문은 85.6%가 상반기보다 증가하거나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기업 중 29.2%는 상반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56.4%는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수출실적이 상반기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 중

57.7%는 수출증가율이 10% 이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출증가 요인으로는 ‘신규수요처 발굴’(27.2%), ‘원·달러환율 상승’(17.6%) 등을 꼽았다.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환율 변동성 심화’(33.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21.0%), ‘중국 경기 둔화’(14.9%), ‘보호무역주의 심화’(10.7%)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30.2%는 최근 남북관계 변화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수출에 대해



서는 26.2%가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고, 46.0%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 광주 보합·전남 하락

고등어·돼지고기·삼푸 상승하고 감자·수박·양파 ↓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광주는 보합, 전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2로 전월대비 보합,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1.4% 각각 올랐다. 전월대비 휘발유, 고등어, 돼지고

기, 파, 삼푸 등이 올랐고 감자 배추, 토마토 수박, 양파 등이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2% 하락한 반면 전년 동월대비는 2.2% 상승했다.

전월대비 지출목적별로 교통, 주택·수도·전기·연료, 보건 부문이 상승했고 오락·문화,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은 하락했다.

6월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8로 전월대비 0.2% 하락했고, 전년 동월대비 1.6%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한 반면,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했다.

전월대비 고등어, 쌀, 삼푸, 파, 돼지고기 등이 상승했고, 감자, 수박, 배추, 양파, 달걀 등이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1% 하락했고 전년 동월대비 2.0% 상승했다.

전월대비 지출 목적별로 교통, 서비스, 주류, 담배,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은 상승하고 오락·문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 통신 등은 하락했다.

태풍 ‘쁘라삐룬’에 침수된 차, 자동차보험 보상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에만 피해 보상 내부 물품 보상 불가능...무리하게 진입 ‘과실’ 적용



2일 충북 제천시 송학면 서곡리 철도 굴다리를 지나던 1t 화물차가 물에 잠겨 견인차가 끌고 나고 있다.

태풍 뿌라삐룬(PRAPIRON)이 북상하면서 침수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3일 차량 침수 시 주의사항과 자동차보험 관련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소개했다.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한 뒤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침수피해 모두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등이다. 홍수지

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 문이나 선 루프 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침수돼 차 내부로 물이 들어가며 벌어진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 관련 보상은 받기 어렵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도 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누가봐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일부러 혹은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침수피해를 당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지금 같은 장마철에는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침수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미리 저지대에 주차한 차를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당부하며 “민약 일부 침수가 됐다면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견인서비스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차 손상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이 파손되고 주변 각종 부품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운행 전 정비공장에서 엔진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침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다. 차량 하단에 물 배출용 밸브(Unload Valve)가 설치돼 있는데, 운행 중 차량이 침수되면 배출구인 이곳에 도리어 물이 흡입돼 엔진이 멈추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시동도 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침수 깊이가 성인남성 무릎높이 이상이거나 차량 바퀴 절반높이 이상일 경우 진입하지 말라”면서 “차체가 높다고 안전하지 않다. 대형차량 역시 에어클리너 물 배출용 밸브는 낮은 위치에 설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물 웅덩이 통과 시 1~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할 것을 권했다. 중간에 기어를 비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험회 관계자는 “물 웅덩이를 통과한 뒤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킬 것”을 권하며 “브레이크 리이닝을 맡겨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 2조 ↑...신용대출은 ‘주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춤하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도로 확대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NH농협은행의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7조3636억원으로 전월(385조3747억원)보다 1조987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3월 2조225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1조5590억원, 5월 1조2869억원으

로 점차 둔화했으나 지난달 2조원 가까이 늘며 다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 자체가 줄었으나 아파트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 확대 등으로 집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둔화됐는데, 집담대출 수요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등으로 가파르게 불어나던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3991억원으로 전월(100조8204억원)보다 578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1조1685억원, 5월 1조990억원씩 늘며 고평행진을 이어가던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난 달 절반 수준으로 꺾인 셈이다.

연휴가 많았던 5월이 지나면서 계절적 특성에 따른 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용대출 둔화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